

제 81차 OPEC 총회 결과와 석유시장 전망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이른바 「盧泰愚선언」을 계기로 붓물터지듯 밀어닥친 민주화의 열기는 아직도 식을줄을 모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가리켜 「명예혁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동안 실패와 좌절만을 거듭하던 정치마당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감동을 맛보았다. 아마도 온국민의 가슴을 적셔준 이처럼 진한 감동의 소용돌이는 8.15 해방과 4.19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 주인에게서 유리된 채 권력주변에서만 맴돌던 정치가 마침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던 날, 마치 야당과 역할 바꿈을 한듯한 盧대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앙고백을 들으며, 온국민은 거듭 태어난듯한 충만한 기쁨을 맛보았다. 아직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은 민주화가 당장에 이루어진듯한 흥분속에 시중의 관심과 화제는 온통 정치 일색이다. 바야흐로 정치만개의 시대를 맞는 느낌이다. 이런 정치열기속에서 다른 얘기는 애당초 먹혀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다.

국내가 온통 민주화의 열기로 열광하던 거의 같은 시기에 빈에서는 제81차 OPEC(석유수출국기구)총회가 3일만에 油價와 산유쿼터에 합의하고 폐막되었다. 이에 관한 기사는 국내매스컴에서 거의 무시되었다.

이 정도의 기사가 정치 일색의 지면을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번 총회결과가 함축하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총회결과를 놓고 볼 때, 앞

로 국제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소요원유의 수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주목할 만한 상황전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빈에서 열린 제81차 OPEC총회는 이란, 알제리, 리비아등 강경파 산유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배럴당 18달러의 固定油價制를 유지하고, 금년 하반기 산유쿼터는 당초 예정(3/4분기 1,660만b/d, 4/4분기 1,830만b/d, 평균 1,743만b/d 보다 축소된 1,6660만b/d로 제한키로 합의했다. 이와같은 산유쿼터합의는 실제 생산수준에 관계없이 앞으로 현물유가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OPEC의 고정유가 적용 원유수출량은 약 300~400만 b/d로서 전체 수출량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량이 200만b/d 이상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따라서 OPEC산유국중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진정한 固定油價의 준수국이라고 할 수 있다. OPEC의 석유수출중 持分원유판매, 제품판매, 바터거래등이 약 50%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거래는 진정한 의미의 고정유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實例로 나이지리아는 생산회사에 배럴당 2달러의 지분마진을, 아랍에미리트는 1달러의 지분마진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분원유판매량은 100만~150만b/d에 이르고 있다.

OPEC의 국가별 산유쿼터

	87년 상반기		87년 하반기	
	산유쿼터 (千b/d)	구성비 (%)	산유쿼터 (千b/d)	구성비 (%)
알 제 리	635.0	4.02	667.0	4.02
에 콰 도 르	210.0	1.33	221.0	1.33
가 봉	152.0	0.96	159.0	0.96
인 도 네 시 아	1,133.0	7.17	1,190.0	7.17
이 란	2,255.0	14.27	2,369.0	14.27
이 라 크	1,466.0	9.28	1,540.0	9.28
쿠 웨 이 트	948.0	6.0	996.0	6.0
리 비 아	948.0	6.0	996.0	6.0
나 이 지 리 아	1,238.0	7.84	1,301.0	7.84
카 타 르	285.0	1.80	299.0	1.80
사우디아라비아	4,133.0	26.16	4,343.0	26.16
아랍에미리트	902.0	5.71	948.0	5.71
베 네 수 엘 라	1,495.0	9.46	1,571.0	9.46
합	15,800.0	100.0	16,600.0	100.0

이와같은 고정유가 원유수출에도 불구하고, OPEC현물유가는 배럴당 18달러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석유공급량이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서 OPEC는 쿠웨이트의 제안을 받아 들어 유가안정장치를 제도화했다. 그것은 현물유가가 固定油價

를 기준하여 크게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할 경우, 산유쿼터를 조정하여 현물유가를 고정유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가안정장치는 결국 회원국의 협정(산유쿼터)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쿠웨이트石油장관은 유가가 크게 상승할 경우, 총회의 추가합의가 없더라도 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의 OPEC수요는 합의된 산유쿼터인 1,660만 b/d보다 70만~140만b/d를 상회하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수요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강세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등의 쿼터 초과생산(100만~130만b/d)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징은 이란이 감산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많은 회원국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이란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伸張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自國 이익에 집착하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공동행동에 의한 목표달성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단기간내에 효과적인 합의를 導出하는 점, 근근력을 보여줌으로써 지난 86년 油價전쟁 이후 OPEC의 현실대처능력이 현저하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국제석유시장은 OPEC의 감산합의로 앞으로 油價가 강세 내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PEC의 석유쿼터 감축에 따라 금년 3/4분기는 50만b/d 과잉공

OPEC의 石油수출현황(87년 기준)

(단위: 백만B/D)

	固定油價	기 타	기타石油판매형태
사우디아라비아	2.0	1.3~1.5	製品판매, 바터거래
쿠 웨 이 트	0.1	0.5~0.7	製品판매 0.5백만b/d
이 란	0.5	1.5	固定油價판매시 보너스조항
이 라 크	0.3~0.5	1.5	바터거래 1백만b/d 이상
카 타 르	-	0.25	\$0.4~0.5b/d 할인판매
아랍에미리트	0.3	0.6~0.7	\$ 1 持分마진보장, 現物판매
리 비 아	-	NA	바터거래
가 봉	-	0.12	持分會社 판매
인 도 네 시 아	0.1~0.2	0.5~0.6	생산비연계 持分會社 판매
에 콰 도 르	-	0.18	對美國 現物판매
나 이 지 리 아	0.1	0.5~0.8	\$ 2 持分마진보장
베 네 수 엘 라	-	0.5~0.8	製品판매
알 제 리	0.2	0.25	製品판매 50% 이상
합	3~4	8~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OPEC產原油 수급전망

(단위 : 백만B/D)

	87년 3/4분기	87년 4/4분기
(1) OPEC產原油 수요	17.3	18.6
(2) 87年 하반기쿼터	16.6	16.6
(3) 需要감세효과[(1)-(2)]	0.7	1.4
(4) 쿼터초과생산	1.0	1.3
이 라 크	0.7	1.0
아랍에미리트등	0.3	0.3
(中立地帶생산)*	(0.3)	(0.3)
(5) 초과공급[(4)-(3)]	+0.3	-0.1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註> 이라크가 증산을 지속하는 경우,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對이라크 原油지원(war relief oil)을 중단할 수도 있음. 이를 반영하여 中立地帶 원유생산은 쿼터초과량에 포함되지 않았음.

급, 4/4분기는 70만b/d 공급부족으로 하반기 전체로는 20만b/d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집계는 이라크의 산유량이 3/4분기 중 200만b/d(46만b/d 쿼터 위반), 터키 경우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는 4/4분기에는 250만b/d(약 100만b/d 쿼터위반)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시산한 것이다.

87년 자유세계 석유수급전망

(單位 : 100萬B/D)

	3/4분기	4/4분기	연 평균
需 要	46.8	47.8	47.0
供 給	47.3	47.1	46.5
- O P E C	18.5	19.0	18.2
[原 油	17.1	17.6	16.8
N G L	1.4	1.4	1.4
- 非 O P E C	28.8	28.1	28.3
在 庫	0.5	△0.7	△0.5

<자료> 석유개발공사

OPEC회원국들이 앞으로 감산합의를 준수할 경우, 하반기에는 공급부족으로 油價가 계속 강세로 일관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결국 금년 하반기의 현물유가는 이라크의 산유량 수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며, OPEC 油價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에서 등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峯灣에서의 美國과 이란의 대립은 당분간 유가상승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第81次 OPEC總會 聲明 全文

제81차 OPEC총회가 '87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만장일치로 나이지리아의 石油資源 長官이며, 同國 수석대표인 Alhaji Rilwanu Lukman卿을 의장으로, 에콰도르의 에너지鑛物 長官이며 同國 수석대표인 Javier Espinosa Teran卿을 교체의장으로 각각 재선출하였다.

또한 총회는 아랍에미리트의 石油鑛物 長官인 Mana Saeed Otaiba 박사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시장감시위원회 회의 보고서등을 검토하였다.

총회는 배럴당 18달러의 固定油價制를 도입하고, OPEC 生産上限線을 회원국별로 할당했던 '86년 12월 총회의 합의가 石油油價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에 만족을 표하면서 現物市場 및 全 OPEC 油種의 Netback Value를 포함한 석유시장의 모든 지표들이 안정을 보였으며, 지난 총회 합의사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OPEC 油價構造가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하반기 수급전망을 검토하였고, 油價의 지속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4분기 OPEC 生産상한을 3/4분기와 동일한 1,660萬b/d로 하고 各국별 쿼터配定은 3/4分期과 동일하게 결정했다.

또한 총회는 안정적인 OPEC가격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OPEC公式價와 관련, 現物市場價格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5개국으로 구성된 價格監視委員會를 결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시장가격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안정에 필요한 OPEC의 하반기 생산수준 조정을 위해서 임시총회 개최를 즉시 요청할 것이다.

한편, 총회는 각 회원국들이 작년 12월 합의한 公式價格과 산유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회는 합의사항 준수 추구를 위한 3개국으로 구성된 合意遵守監視委員會도 결성키로 했다.

또한 총회는 지속적인 시장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非OPEC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非OPEC國과의 필요한 협의를 위해서 작년 4월 77차 임시총회에서 구성된 5人 特別委員會의 활동을 계속키로 결정했다.

총회는 美달러貨의 계속된 가치하락에 주목하고, 이 문제는 다음 총회에서 연구 보고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사무총장 지명 문제를 협의했으며, 다음 정기총회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키로 합의했다. 각 회원국들에게는 OPEC규정 28條A項에 의거, 사무총장 후보를 다시 한번 推薦하도록 요청했다.

다음 총회는 12월 9일 빈에서 열릴 것이다.